

구성주의 젠더이론과 해체의 미학*

탁 선 미 (한양대)

I. 구성주의 젠더이론 - 페미니즘의 죽음?

페미니즘은 물질적 사회적 자원과 권력에 대한 접근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받는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정치적인 이념이자 입장이다. 페미니즘은 여성운동에서 유래하였지만, 조직적인 여성운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재에도 개인의 신념으로서, 정책결정의 근거로서, 또 철학적 사유의 지향으로서 광범위하게 유효한 개념이다. 페미니즘이론이란 이러한 정치적 이념적 지향을 다양한 방식으로, 예컨대 인식론적으로, 역사철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또는 사회학적으로 개념화하고 체계화한 사유의 모델들이다. 1970년대 신여성운동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확산되던 서구 페미니즘은 그러나 간헐적으로 침체를 보이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위치에서 '페미니즘의 죽음'이 공공연하게 언급되었다. 2001년 32호 『슈피겔』 지는 '릴라 세대의 종말 Das Ende der Generation Lila'¹⁾라는 제목 하에 슈피더 정부의 여성부 장관 베르크만이 사민당의 여성주의적인 평등지향 정책을 전통을 벗어나 '가족과 일의 공존'이라는 노선을 추구한다고 비판하였다. 독일의 경우 현재 사회생물학적 성차론이 부상하고, 미리암 라우 Miriam Lau 나 테아 도른 Thea Dorn 같은 대중적인 반페미니즘 내지 신페미니즘 이론가들이 적잖은 호응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페미니즘의 도그마에 남성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어왔다거나, 글로벌 시대의 문제에 페미니즘의 이분법적인 분석은 유효성이 없다거나, 가족의 가치가 새로이 발견되고 있다거나, '여성'이라는 특별한 피해의식 없이도 오늘날 여성이 유능한 개인으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바로 여성들, 더 나아가 스스로 페미니즘의 포기를 선언한 여성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서구 페미니즘이 그 이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74-AS0119)

1) Lila는 여성운동 신봉자들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1989 동독에서 새롭게 형성되었던 신여성운동의 대표적 조직 중 하나의 이름도 Lila Offensiv 였다.

론적 틀과 실천의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사이비 페미니스트의 죽음 신드롬 False Feminist Death Syndrome' 으로 명명되어 영미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²⁾

실천이 아닌 이론의 차원에서 최근 페미니즘의 위기는 젠더이론의 부상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젠더이론은 성차에 관한 이론으로서 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 가치, 정체성, 역할이 결부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사회과학적 사유들이다. 오늘날 젠더이론은 사회과학적 성역할이론을 훨씬 넘어서 있는데, 1980년대 영미권에서 젠더개념이 부상할 때부터 그것은 후기구조주의와 해체주의, 구성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젠더연구에 대한 전통적 페미니즘의 우려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차이론이 여성성에 대한 강조로 흐름으로써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한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한 시야를 가릴 수도 있으며, 프랑스 해체주의 페미니즘처럼 성차를 언어철학적 인식론적 차원에서 이론화함으로써 성차와 사회적 권력 사이의 관계를 놓칠 수도 있다. 페미니즘이론에서 젠더이론으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철학자이자 비교문학자인 주디스 버틀러이다. 버틀러는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차원에서도 성은 구성의 결과물이라는 급진적 이론을 내세움으로서 고정된 여성적 정체성에 어느 정도 기반하고 있던 모든 이론들에 일시에 도전하였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버틀러에 대한 1990년대 초반의 격렬한 반발은 그 이론의 철학적 파괴력에 대한 반증으로 보인다. 성정체성을 더 이상 신체나 주체나 보편 이성을 근거로 이론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구분 가능하며 연속적인 여성-주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론화해왔던 페미니즘 이론에는 충격이었다. 버틀러에 대한 페미니즘이론가들의 이러한 회의는 지금까지도 존속한다.³⁾

젠더이론이 페미니즘의 방해물이 아니라 새로운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차에 대한 지적 유희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진지하게 젠더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젠더연구가 확정된 성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거꾸로 성차가 생성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성의 개념에 도대체 어떤 의미들이 부여되는지, 그리고 정치적 권력의 분배과정에 사회구조에, 또 지식과 문화와 예술의 생산에 성개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⁴⁾ 묻기 위해서이다. 구성주의 젠더이론에 수행성

2) Vgl.: Hark, Sabine u. Dietze, Gabriele (Hg.): Dissidente Partizipation. Eine Diskursgeschichte des Feminismus, Frankfurt a.M. 2005.

3) Toril Moi, S. Benhabib, Landweer, S. Guber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4)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잉에 슈테판 편: 젠더연구, 탁선미 외 역, 서울 2002 (독어본 2000) 19쪽.

이론이나, 문화사회적 실천의 영역으로 확대된 기호학, 그리고 제도 Institution로서의 젠더개념 등은 미래지향적인 단초를 제시한다.

국내 독문학계에서 여성주의 비평이 자리를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 독일 여성작가를 연구하는 몇몇 선구적 여성연구자들이 있었지만, 비교적 동시 다발적으로 여성주의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이후였다.⁵⁾ 2000년도 이후에는 기존 2, 3세대 전후 독문학자들을 뒤이어 4, 5세대 젊은 연구자들도 여성주의 연구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최근의 독일문학 학술지들에는 매 호 한두 편의 여성주의 비평의 성격을 갖는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독문학계에서 여성주의 연구는 현재까지 작가연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 독문학계의 여성주의 연구의 경력이 비교적 일천하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지난 이십오년 간 서구 페미니즘의 이론들이 다양한 해체주의 및 구성주의 젠더이론들과 일종의 교착 상태에 있었던 것과도 상관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젠더이론이 성차와 관련해 활짝 열어놓은 새로운 인식론적 가능성과 수준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페미니즘의 일관된 문제의식을 추구하는 것은 국내 독문학계에도 피할 수 없는 학문적 과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⁶⁾ 여성주의 연구의 이론적 성찰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출발한다. 젠더이론의 현재의 수준과 과제를 염두에 두고 여성주의 이론, 문학비평모델, 문학사의 지난 몇몇 궤적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시몬 드 보부아르 Simone de Beauvoir의 이론은 역사철학과 실존적 주체 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체주의적 인식론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성차의 문제를 철저하게 구조주의적 상호관계에서 천착하였으며, 역사적 현실에서 성차가 어떻게 제도화 하였는지 추적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젠더연구의 문제의식을 선취한 경우

5) 이에 대해 박광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성문학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된 것은 1990년에 출간된 한우근교수의 회갑기념집 『독일 여성문학』(삼영사)으로 기억된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서 80년대 말에 (여)교수들이 모였을 때 무엇이 여성문학이고, 왜 그것이 문제되는지 실감할 수 없었다.” (박광자: 독일 여성작가 연구, 대전 2005, 서문.)

6) 국내 독문학자들 중 이론적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해체주의 페미니즘 이론을 소개하고 재구성하는 몇몇 경우들이 있으며 (김운상, 박희경, 김영옥) 최근에 버틀러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 (박희경, 김륜옥, 장순란) 1980년대 여성주의 독문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질비아 보벤센의 이론을 소개하는 논문이 최근에야 발표되었다는 것은 (이병진 2003) 국내 독문학 여성연구가 시급히 이론적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세기말 모더니스트들의 반여성주의, 집멜의 여성성이론, 보부아르의 여성-타자성이론 등 지나간 여성주의 이론사의 중요한 부분들도 독문학계에서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로 보고자 한다. 버틀러의 이론은 수행성 개념⁷⁾에 초점을 두어 그 핵심 생각을 정리하였다. 질비아 보벤센 Silvia Bovenschen 의 『상상의 여성성. 여성성의 문화사적 존재형식과 문학적 재현형식에 대한 사례연구 Die imaginierte Weiblichkeit. Exemplarische Untersuchungen zu kulturgeschichtlichen und literarischen Präsentationsformen des Weiblichen』(1979)은 특별히 다시 주목할 가치가 있다.⁸⁾ 이것은 프랑크푸르트 비판이론, 특히 페터 뷔르거의 『아방가르드 이론』의 자율성 예술 비판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바로 이 자율성 예술이라는 제도 자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을 끊임없이 차별적인 상호관계 속에 위치시킴으로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대학 사회학 교수였던 주디스 로버 Judith Lorber 가 성차와 사회권력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포착하는 틀로 ‘사회적 제도로서의 젠더’ 개념을 최근에 제안했던⁹⁾ 것을 염두에 두면, 보벤센의 문학이론을 다시 읽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현 단계의 구성주의 젠더이론의 비판적 관점에서 문학사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해진다. 의미의 체계로 이루어진 사회문화적 규범과 정체성이 텍스트로 재의미화될 때, 그 의미체계는 동일하게 재생되지 못하고 미세한 균열들을 동반한다. ‘거슬러 읽기’는 바로 이러한 균열을 포착하는 텍스트 비평이다. 또한 젠더이론은 여성 자아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그 심리적 과정을 파고드는 글쓰기와 전혀 다른 유형의 글쓰기를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문학적 형식이 만들어 내는 인물과 언어의 내밀함과 통합성을 거부하고, 그의 성정체성과 자아, 그리고 언어에 내재된 분열과 모순을 주목하고 드러

7) 수행성이론은 텍스트의 고유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서 벗어나 그것이 실천적 맥락에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주목한다. 원래 오스틴의 언어행위이론에서 시작되어 푸코와 알튀세르의 담론의 권력분석에 영향을 받으며 성립되었다. 더 나아가 문화적 형식으로서의 퍼포먼스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연구도 수행성연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룬다. 참조: Wirth, Uwe (Hg.): Performanz. Zwischen Sprachphilosophie und Kulturwissenschaften, Frankfurt a.M. 2002.

8) 이병진은 보벤센의 여성주의 문학이론을 비판이론의 지평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이병진 2003) 이병진은 여기서 지난 이십여 년 간의 여성주의 이론과 문화비평이 보여준 혼란을 지적하면서, 비판이론의 전통에 서있는 보벤센을 다시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해체주의에서 문화기호학에 까지 이어지는 성차의 이론들이 비판이론 계열의 여성주의 연구의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멀어져 있다는 이병진의 회의에 공감하는 한편, 문화기호학의 수행적 측면을 비판적인 여성주의 문학연구에 적극적으로 이론화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박희경은 18세기 독일 여성문학 연구에 대한 여러 논문에서 여성작가와 인물들이 당시의 젠더질서의 기호체계에서 어떤 새로운 자기의식과 역할을 끌어냈으며, 동시에 제약을 받는지 모녀관계를 중심으로 밝히고 있다. (Kim-Park (박희경) 2000)

9) Lorber, Judith: Gender-Paradoxien, 2.Aufl., Opladen 2003.

내는 글쓰기가 새로운 여성주의 정치학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 다음 II, III, IV 장에서는 이상에서 서술한 바, 비판적 젠더연구로 이르는 이론의 궤적과 문학기론 및 비평의 지형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전체의 이론적 궤적과 지형도를 고려할 때, 이 논문은 그에 대한 최소한의 윤곽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II. 보부아르의 『제 2의 성』에서 버틀러의 『젠더불만』까지

‘여성문제’를 19세기 사법 및 공법상의 일반적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로 보고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의 부여를 요구했던¹⁰⁾ 19세기의 여성 운동가들은 시민사회의 남성의 지위나 존재방식 자체를 의문시하지는 않았다. 전후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보부아르는 여성의 정체성 문제를 양성의 상호관계 속에서 본격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여성주의 이론가였다. 남성이 지닌 일반적 주체성이 여성이라는 타자와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생성된다는 보부아르의 통찰을 통해서 말하자면 여성문제는 젠더문제 Geschlechterfrage 로 이동하는 기차에 올라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49년 발표된 보부아르의 『제 2의 성』은 ‘여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여자의 ‘타자성’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어 던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보부아르에 따르면 무릇 주체는 반드시 타자를 설정하고 타자와 대립하면서 생겨나지만, 주체 의지의 수동적 대상으로 전락한 타자가 자신의 타자성을 영원히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전쟁, 잔치, 거래, 계약, 투쟁을 통해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는 상호성이 내재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는 주체와 타자 간의 상호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남녀 사이에는 이런 상호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중 한쪽만이 유일한 본질로서 긍정되고, 그 상호관계의 상대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대성을 부정하고 그것을 순수한 타(자)성으로 정해 버리는 것인가? [...] 자기를 ‘주체’로 정립하는 ‘주체’에 의해 ‘타자’는 ‘타자’로서 세워진다. 그러나 타자가 주체로 반전하여 되돌아갈 능력이 없게 되면

10)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정치적 평등에 대한 헤드비히 돔의 주장은 그의 유명한 모토 “인권에는 성이 없다. Menschenrechte haben kein Geschlecht!”에서 잘 드러난다. Vgl: Rosemarie, Nave-Herz: Die Geschichte der Frauenbewegung in Deutschland, Opladen 1994, S.24: Die Frauenfrage in Deutschland 1865-1915, Stuttgart 1994.

그 타자는 그런 상대의 관점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자에게 있어 이러한 복종은 어디에서 왔는가?¹¹⁾

보부아르의 『제 2의 성』은 여성의 영원한 타자성의 기원에 대한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는 방대한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보부아르는 서구문명사 전 과정에서 여성종속의 사회구조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여성의 타자성이 여성의 본질로 간주되기까지 주체인 남성 욕망의 대상인 여성에 대해 어떠한 표상과 담론이 반복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 여성성의 신화는 사회제도와 관습으로 물질화되어 여성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체험으로 환원되고 정체성으로 내면화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결과물로서 생겨난 여성적 타자성이 역으로 생물학, 의학, 심리학, 유물사관 등의 학문적 규정과 개념을 통해 오히려 여성적 숙명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이처럼 여성적 타자성의 원인인 여성종속의 사회적 구조가 학문과 사상에 의해 여성적 본질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결과물로 역전되는 기나긴 과정을 거치면서, 법적 태도와 무관하게 여성적 타자성은 개별 남성과 여성들의 내면과 그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영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20세기에도 여성은 남성외의 절대적 반사경이자 확장된 자아와 같은 존재로, 동시에 남성성 내부의 이질적인 타자성의 영역으로 기능하면서 자신의 물질적 즉자성과 타자성을 역전시키는 기회를 봉쇄당하였다는 것이 보부아르의 설명이다.

사실 보부아르의 이러한 젠더철학의 단초는 여성문제에 대한 격론이 한창 진행되었던 20세기 초 독일의 문화철학자였던 게오르그 짐멜이 처음 제공한 것이었다. 지난 삼십여 년 간 젠더이론의 논의에서 일종의 르네상스를 맞은 짐멜은 이미 1911년 「젠더-문제의 상대성과 절대성 *Das Relative und das Absolute im Geschlechter-Problem*」에서 남성이 인간의 보편적 규범이 된 것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 마치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처럼 절대적인 “권력적 지위 *Machtstellung*”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짐멜에 따르면 바로 대여성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고유한 남성적 특징, 즉 남성의 표상과 규범, 남성의 일과 감정, 그리고 남성적 가치는 그의 배타적 권력 위치 때문에 쉽게 “특수성을 초월한 중립적 객관성과 타당성의 영역”¹²⁾으로 고양된다는 것이다.

11) 시몬 드 보부아르: 제 2의 성, 상권, 조흥식 역, 서울 1996, 16쪽.

12) Simmel, Georg: Schriften zur Philosophie und Soziologie der Geschlechter, Frankfurt a.M. 1985, a.a.O. S.202.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영미권에서 불붙은 여성주의 논의들은 여성의 타자성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철학적 인식 뿐 아니라 여성 주체성의 복구와 정치적 휴머니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부아르의 페미니즘을 계승한다. 이 시기의 여성주의 이론은 크게 보면 19세기부터 이어온 자유주의적 입장, 급진적 자유의지론적 입장, 그리고 여성의 고유한 차이와 강점을 강조하는 급진적 문화주의 입장으로 대별된다.¹³⁾ 그러나 보부아르 뿐 아니라 성과 성차 자체를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보는 1970년대 급진적 자유의지론, 또 기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역전시키려는 문화주의 입장 모두 '여성주체'를 전제로 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페미니즘이 여성정체성의 정치학에서 급진적 구성주의 젠더이론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남성주체 뿐 아니라 여성주체에 대한 논란과 회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그 원인과 배경은 매우 복잡적이다. 여성'주체'의 정치학에 대한 회의는 한편으로는 라캉과 데리다가 대변하는 후기 구조주의 주체비판 및 이들의 영향 하에서 성장한 썩수, 이리가라이, 크리스테바의 '타자성'의 페미니즘¹⁴⁾이 주었던 이론적 자극,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여성운동의 주체 규정을 둘러싼 여성운동 내부의 자기비판,¹⁵⁾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에 경험적으로 부정할 수 없게 가시화된 서구사회 성 질서와 성 문화의 전면적 위기와 변동이 상호 작용을 일으키면서 확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여성주체 정치학의 퇴조에 이론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누구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문학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이다. 그의 『젠더불만』(1990, 독일어본 1991)은 보부아르가 가져다준 통찰, 즉 여성의 성역할과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간다. 보부아르가 생물학적이고 해부학적 성인 섹스 sex와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13) 이 세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이론가들은 각각 베티 프리단 Betty Friedan, 케이트 밀렛 Kate Millett 과 파이어스톤 Firestone, 그리고 마릴린 프렌치 Marilyn French 와 메리 델리 Mary Daly 등이다.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이러한 구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로즈마리 퍼트남 통: 페미니즘 사상, 이소영 역, 서울 2000, 17-178쪽

14) 라캉과 데리다, 그리고 이들의 제자들인 프랑스 여성 철학자 3인의 이론은 국내에서도 활발히 소개된 편이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언어철학과 남성적 주체비판, 그리고 타자성의 이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소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음 문헌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아리카 르메르: 자크 라캉, 이미션 역, 서울 1998; Culler, Jonathan: Dekonstruktion, Reinbek bei Hamurg 1988.

15) 70, 80년대 여성운동을 거치며 미국 내의 여성들 내부에서도 인종과 계급 등에 따라 삶의 문제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것, 중산층 백인여성들이 주도했던 영미 페미니즘과 '가부장제' 억압 이론이 오리엔탈리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과 의문이 제기되었다.

성(정체성)인 젠더 gender를 구분하고, 후자의 임의성과 변화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면 버틀러는 바로 생물학적 성을 가진 우리의 몸 역시 구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버틀러가 보기에 양성에 차별적인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성애의 젠더 질서가 그토록 공고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양성으로 '성 구분된 자연 sexed nature (eine geschlechtliche Natur)', 또는 '자연적 성 natural sex (ein natürliches Geschlecht)' 을 상징하고 우리의 몸을 언제나 그렇게 느끼는 데 있다. 버틀러는 우리의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이 그토록 자연스럽게 통합적인 자기 체험 a unity of experience¹⁶⁾이 될 수 있는 것은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성인 젠더와 이성애적 성적 욕망이 생물학적 양성 질서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버틀러는 젠더 담론의 시스템이 사실은 남여 정체성 gender, 이성애 성욕 sexuality, 남여 양성 sex 을 통괄하고 있으며, 바로 남여라는 양성을 담론 이전의 영역, 즉 생물학적 소여의 영역으로 치부함으로써, 이분법적 젠더 질서가 사실은 담론 과정의 효과라는 것을 은폐한다는 것이다. 버틀러의 이러한 급진적 구성주의 젠더이론이 독일의 여성연구자들에게 준 이론적 충격을 잉에 슈테판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정체성, 신체, 그리고 성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담론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버틀러의 명제는 신체의 자연상태에 대한 모든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 동시에 버틀러의 명제들은 신체가 남성 또는 여성으로 표기된다는 사실을 갑작스레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문화화 과정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어떤 신체 정체성도 없다는 것이 버틀러의 생각이다. 정체성은 오로지 학습 행위를 통해 습득된다는 것이다. 신체는 원본이 없는 '복사본'으로 "문화적 의미에 단순히 외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정체성을 표기함으로써 비로소 탄생하는 구성물" 인 것이다.¹⁷⁾

생물학의 성 이분법과 신체가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담론의 효과로 생겨난 것이라는 버틀러의 관점은 푸코가 지식의 계보학이라고 명명한 철학적 방법이다. 푸코에 따르면 어떠한 과학적 지식이 객관적 사실을 반영한다고 믿게 되는 것은 지식이 특정한 담론 과정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지식의 발생 과정을 역으로 추적하고, 그 담론 과정에 내포된 정치적 관심들을 드러내는 것이 계보학인데,

16)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New York 1990, S. 11.

17) 잉에 슈테판: 젠더, 성, 이론, 출처: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잉에 슈테판: 앞의 책, 91-146, 그중 113쪽.

그의 '성 Sex' 분석은 그 한 예이다. 푸코에 따르면 “〈성〉 개념은 해부학적 요소, 생물학적 기능, 행동, 감각, 쾌락을 인위적인 통일 원리에 따라 재편성하게 해주었으며, 그 허구의 통일원리를 인과관계의 원칙,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의미, 도처에서 발견되는 비밀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¹⁸⁾

버틀러는 푸코의 성의 계보학을 이어받아 생물학의 성이분법에 내재된 이성애 정체성의 정치학을 비판한다. 젠더 정체성이 생물학적 실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젠더질서를 부여받은 생물학적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젠더 담론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즉 젠더질서는 반복적인 언어행위 과정을 통해 추상적 기표에서 현실의 권력이 되고, 자신을 재생산 할 수 있다. 젠더의 상징질서가 역사적으로 그 어떤 상징질서보다 갖가지 터부와 제의, 금지와 관습으로 강박적으로 통제되고, 무수한 신화와 상상으로 끊임없이 재현된 것은 바로 이러한 퍼포먼스 외에 그것이 다른 존재 근거를 갖지 않는 기표의 구성물이며, 반복을 통하지 않고는 와해된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다. 개인은 이 담론에 동참함으로써만이 개인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지만, 그의 정체성은 그 개인의 것이라기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징적 기호체계의 재생산물이다. 젠더 정체성이 개인에 대한 기호체계의 통제 권력¹⁹⁾이라는 것을 주목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푸코이다.²⁰⁾ 버틀러에 따르면 푸코의 헤르쿨린의 경우에서 가시화된 기호체계의 권력이 사실은 부정과 금지의 계율로 모든 여성과 남성의 성적 욕망에 드리워져 있으며, 따라서 이성애적 양성질서가 허용하는 성적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만을 그 그림자로 동반한다는 것이다.

18) 미셸 푸코: *성의 역사*, 제 1권, *얇의 의지*, 이규현 역, 서울 1990, 164쪽.

19) 성과 젠더의 기호체계는 그것이 관습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개인의 신체와 정서에 대한 통제 권력으로 기능한다. 가핑클 Harold Garfinkel 에 따르면 이러한 규범적 성이해의 관습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단지 두 성이 있다. 2) 모든 남성/여성은 하나의 성을 가지고 있다. 3) 성은 변경할 수 없고, 평생동안 동일한 성을 가진다. 4) 육체적 성과 성감각은 일치한다. 5) 성을 바꾸는 것은 가령 변장처럼 단지 의례로서만 인정될 수 있고, 그 외 다른 형태들은 학문적으로 해명이 필요하며, 병적이기 때문에 치료될 필요가 있다.” (군터 슈미트: *성과학*, 인용: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잉에 슈테판: 앞의 책*, 서울 2002, 287쪽)

20) 푸코는 『성의 역사』의 출간 이년 후인 1978년, 양성의 신체를 가진 헤르쿨린 바르뱅 Herculine Barbin의 경우를 둘러싸고 프랑스 의학과 법학자들이 1860에서 1874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어떤 의학적, 법적 논쟁을 벌였는지, 이 와중에서 바르뱅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해 위 책의 부록으로 출간한다. Vgl. Foucault, Michel: *Über Hermaphroditismus. Der Fall Barbin*, Frankfurt a.M. 1998.

그런데 한 개인이 벗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기호의 체계 안에 갇혀 있다면, 기호의 체계에 근거한 상징질서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바로 기호체계가 발화행위로 반복되는 한에서만 유지된다는 사실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버틀리의 생각이다. 즉 특정한 성에 소속되었다는 감정은 “다양한 행위의 출발점으로 작용하는 안정적인 정체성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구성된 것으로, 오히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다 - 그것은 어떤 행위들을 정형화된 방식으로 반복함으로써 생겨나는 그런 정체성이다. [...] 정체성의 근거가 시간적 과정에서 행위들을 정형화된 방식으로 반복하는 데 있다면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처럼 이음새 없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면, 성을 변화시키는 가능성은 바로 이 행위들 간의 관계가 임의적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행위를 다른 방식으로 반복할 수 있는 여지, 그 행위들의 양식을 와해시키거나 또는 전복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²¹⁾ 버틀리가 ‘해부학적 성, 성적 욕망, 성 생활 양식, 사회적 젠더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젠더질서의 체계에 내재하는 틈과 불연속성을 드러내는 여러 현상들, 예컨대 남성적 여성의 과장된 여성적 수동성이나 트랜스젠더의 유동적 정체성 등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젠더질서의 내재적 전복의 계기를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이분법의 기호체계가 반복되는 지점이며 동시에 그 기호체계의 모순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버틀리의 급진적 구성주의 젠더이론은 1990년대 초반 비판이론 계열의 페미니즘과 신체관점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젠더이론들로부터 문화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영미권의 페미니즘의 논의에 뒤늦게 합류한 독일의 젠더연구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시간적 위치에 있던 논의들이 한번에 밀려들고, 또 통일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 앞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해 지면서 버틀리의 이론에 더욱 혼란을 느꼈다.²²⁾ 버틀리에

21) (In diesem Sinne) ist die Geschlechterzugehörigkeit keineswegs die stabile Identität eines Handlungsortes, von dem dann verschiedene Akte ausgehen; vielmehr ist sie eine Identität, die stets zerbrechlich in der Zeit konstituiert ist - eine Identität, die durch eine stilisierte Wiederholung von Akten zustande kommt. □ Ist die Grundlage der Geschlechteridentität die stilisierte Wiederholung von Akten durch die Zeit und keine scheinbar nahtlose Identität, so ist die Möglichkeit von Geschlechterveränderungen in der abiträren Beziehung zwischen diesen Akten zu finden, in der Möglichkeit anderer Arten des Wiederholens, im Durchbrechen oder in der subversiven Wiederholung dieses Stils. (Butler, Judith: Performative Akte und Geschlechterkonstitution, In: Wirth, Uwe (Hg.): a.a.O. S.301-320, davon S.302.)

22) 참고: 크리스티나 브라운; 잉에 슈테판; 앞의 책, 100-105쪽.

대한 이러한 비판은 부분적으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²³⁾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적으로 지양되는 모습이다. 구성주의 젠더이론이 특히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현과 매체연구 분야에서 버틀러 이론의 생산적 적용과 계승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대중문화와 영화 비평가인 수잔나 D. 윌터스는 문화인류학적 수용과 이해 모델을 원용하며, 의미화 과정을 텍스트 자체의 경계를 넘어 실제의 수용자와 그의 사회적 실천의 맥락을 동시에 구체적으로 고찰하자는 제안을 한다.²⁴⁾ 그리고 주디스 로버는 젠더를 “제한된 자원과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에서 생겨난” “사회적 제도 soziale Institution” 로 보자고 제안한다. 그녀에 따르면 젠더는 “언어, 친족관계, 종교, 기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발명품이며, 전자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결정된 패턴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삶을 조정한다.”²⁵⁾

Ⅲ. 보벤센의 『상상의 여성성』 이후

신여성운동의 영향 아래 여성주의 연구가 독일의 대학에서도 연구소나 프로젝트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1970년대 말 독문학연구의 새로운 모델이 등장한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독문과 교수인 질비아 보벤센은 『상상의 여성성』에서 17-18세기 독문학에서 근대초기 시민사회의 문화적 아젠다와 그 내적 모순이 어떻게 서로 다른 다양한 여성의 유형으로 표출되고 형상화되는지 제시한다. 보벤센의 연구가 새로운 것은 그것이 다양한 문학적 여성상의 발굴과 나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 재현된 여성상들을 당시 여성들이 처했던 문화사적 현실의 컨텍스트로 확장하여, 그것이 엮어내는 근대의 젠더 기호체계를 풀어낸다는 데 있다. 보벤센은 근대이후 문학사에서 여성이 그 재현의 차원에서는 전례 없는 높은 가치와 위치를 차지하는 데 반해, 생산 주체로서의 흔적은 매우 빈약하다는 모순에 주목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여성들의 이러한 ‘문화적 운명 Kulturschicksal’ 을 설명해줄 수 있을 여성의 실제 삶에 대한 기록과 연구가 거의

23) 국내에 버틀러를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여성주의 비평가인 임옥희 역시 버틀러의 젠더이론을 문화결정주의로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참고: 임옥희: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주디스 버틀러 읽기, 서울 2006.

24) 수잔나 D. 윌터스: 이미지와 현실사이의 여성들, 서울 1999, 김현미 외 역, 특히 116-153, 192-212 쪽.

25) Lorber: a.a.O. S.47.

전무하다는 사실로부터 보벤센의 물음은 시작한다. 보벤센은 당시 공법 및 민법상으로 미성년의 위치에 있으면서 공적인 역사에서 철저히 배제된 여성들이 다른 한편 문학적 재현이라는 제 3의 공간에서는 가장 넓고 높고 화려한 자리를 차지하는 극단적인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바로 제도로서의 문학 Institution Literatur, 즉 문학작품의 생산, 분배, 소비를 조직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다. 근대 시민사회의 제도로서의 예술이라는 개념은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비판철학의 전통에 있었던 페터 뷔르거가 『아방가르드 이론』에서 제시한 것이었다. 뷔르거는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미학적 규범이 예술의 의식적인 자기이해와는 반대로 근대의 분업적인 시민사회의 하위체도가 되는 근거였으며, 동시에 시장의 교환가치를 획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즉 자유로운 창작의 주체이념과 주관과 대상세계와의 통합이라는 예술의 이상 때문에 무목적적이고 무기능적인 근대의 예술은 근대의 기능사회에 한 제도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보벤센은 여기서 한결음 더 나아가 보편적인 '예술적 창조성'의 구현인 근대의 '작가'라는 개념이 사실은 '남성작가'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남성작가를 다양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여성과 차별적인 상호관계 속에 위치시킴으로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꾸어 말하면 제도로서의 근대문학은 그 계몽과 미학의 보편성으로 인하여 한편으로 여성을 인정하고 통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여성을 배제하고 구획하는 메커니즘을 구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보벤센은 문학제도에 내재된 이러한 차별적 젠더질서의 메커니즘을 근대초기의 문학적 논의와 미학적 사유, 문학비평과 개인적 기록, 실제 여성작가들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낸다. 독일 근대문학의 규범이 자리 잡는 17세기말에서 18세기의 문학적 담론과 재현을 통해 부상하는 여성에 대한 두 가지 스테레오타입 '여성적 지성 die weibliche Gelehrsamkeit'과 '여성적 감수성 die weibliche Empfindsamkeit'은 보벤센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통합과 배제과정의 결과이다. 예컨대 계몽의 이념 아래 남녀 구분 없이 칭송되었던 지식 die Gelehrsamkeit은 시민적 규범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유로운 지적 욕구를 경계하고, 개인의 충동을 순화하고, 합리적 질제를 교육하는 담론으로 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시기의 도덕적 주간지들 die Moralischen Wochenschriften은 바로 이처럼 합리적 수신교육으로 귀결된 시민적 지성문화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고트셰트 Gottsched로 대변되는 이 시기 독일 근대 시학은 같은 맥락에서 작가들의 과도한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제하고 내면의 도덕에 부합하는 문학적 규범을 정착시키는데, 이것은 남성들의 소유물과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에게는 특히 강한 규제를 의미하였다. 중세로부터 유래하는 여성 지식인에 대한 배타적 기호인 마녀 Hexe와 과도한

열정의 파괴적 기호인 루소의 엘로이즈 Héloïse 사이에서 근대의 여성 작가들에게는 여성으로서의 '도덕적 이성 die tugendhafte Vernunft'에 부합하는 좁은 길만이 허용되었다. 고트셰트의 중계로 '영광스럽게도' <독일협회>의 회원이 된 크리스티안네 마리안네 폰 지글러 Christiane Mariane von Ziegler 는 다음과 말한다.

보통 여성의 어리석은 천성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점잖고 박식한 남성들을 나의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적 능력은 배가되고 남성들과 함께 있으면 나의 생각은 자극을 받는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지식인 남성들의 이름 명단에 나의 이름도 올라 있지 않은가. 나 역시 독일어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한다. 이 남성들의 취향에 맞게 독일어를 말하고 쓰기 위해 연습한다. 나는 주어진 규칙에 따른다. 한마디로 나의 의도는 그 남성들의 의도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26)

하지만 지글러 조차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다수 근대 여성들은 시민사회에 여성에게 허용된 가정이라는 새로운 친밀성의 공간에서 가정을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의 정서를 배려하는 지성으로 만족하여야 했다는 것이 보벤센의 지적이다.

보벤센에 의하면 여성에 대해 형성된 또 다른 전형적인 견해인 여성적 감수성 역시 근대의 보편적인 문화 가치와 여성배타적인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용하는 지점이다. 근대 문화에서 감수성 Empfindsamkeit 은 원래 이성과 대립적이며 동시에 상보적인 관계로 설정되었다. 감성은 이성보다 낮지만 후자의 편협함을 넓혀주는 지각능력이며, 동시에 이성에 의해 순화되고 계몽되어야 할 자질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루소와 헤르더는 근대 계몽주의에 감수성의 가치를 통합한 대표적인 이론가들이다. 감수성은 인간의 보다 자연적이고 직접적인 감각능력과 연관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쉽게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감성적 여성은 여성성의 본질에 보다 충실한 여성으로 여겨지고, 종종 지적이고 이기적이고 허영심 있는 여성에 대한 대립적 가치로 제시되었다. 근대문화의 규범화가 진행되면서 지적인 여성에 대한 감성적 여성의 우위는 점점 더 확고해졌고, 자연적이고 단순하면 감성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은 여성 최고의 덕목으로 칭송되었다. 달변의 여성, 정치와 세상사에 해박한 여성은 '자연에 위배되는 일

26) Von Ziegler, Christiane Mariane: Abhandlung, ob es dem Frauenzimmer erlaubt sey, sich nach Wissenschaften zu streben, In: ders.: Vermischte Schriften in gebundener und ungebundener Rede, Göttingen 1739, In: Bovenschen: a.a.O. S.129f.

Unnatur', 꼴불견으로 간주되었다. 18세기를 거치며 '조용한 소박함 Stille Einfalt' 과 '아름다운 영혼 die schöne Seele' 은 이성으로 순화된 자연적인 도덕성을 갖춘 소박하고 단순한 여성을 이상화하는 기호로 확고히 자리 잡는다. 보벤센은 이러한 여성성의 규범화가 여성의 지성을 억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여성의 반지성주의로 귀결되었다고 설명한다. 보벤센의 주장을 근거로 할 때,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성은 근대적 감수성의 영역인 예술과 문학의 생산에서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로서만 참여하거나 아니면 무언의 소비자로서만 존재하게 된 반면, 남성은 여성과 구분되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창조적인 작가 주체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8세기 여성의 문화적 운명은 가부장적 정치사회 권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었고, 동시에 자율성의 문학이라는 제도에 의해서도 결정되었던 것이다.

보벤센의 『상상의 여성성』은 여성주의 독일문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획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보벤센은 단순히 반영이론에 따른 텍스트 내용의 이데올로기 비판이나 문학의 한 분과로서 여성문학을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것을 질적으로 넘어서서, 제도로서의 문학이 여성성이라는 기호를 어떠한 역사적 실천 속에서 사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성공하였다. 보벤센의 『상상의 여성성』 이후 '의미화' 과정과 재현의 실천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더욱 심화되면서 해체주의 페미니즘이 이론적 논의를 주도하였던 시기에도 그의 기획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구체적인 연구사례가 뒤를 이었다.²⁷⁾

27) Vgl.: Berger, Renate; Stephan, Inge (Hg.): Weiblichkeit und Tod in der Literatur, Köln: Wien 1987; Cremerius, Johannes; Mauser, Wolfram u.a. (Hg.): Literarische Entwürfe weiblicher Sexualität, Würzburg 1993; Stephan, Inge: Musen & Medusen. Mythen und Geschlecht in der Literatur des 20. Jahrhundert, Köln 1997; Catani, Stephanie: Das fiktive Geschlecht. Weiblichkeit in anthropologischen Entwürfen und literarischen Texten zwischen 1885 und 1925, Würzburg 2005.

IV. '거슬러 읽기'와 해체의 글쓰기

수잔나 D. 월터스는 주디스 메인 Judith Mayne을 빌어 '거슬러 읽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전영화에 대한 "거슬러 읽기"는 가부장제가 획일적이거나 일관된 것이어서 그 자체의 목적에만 기여하는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데 있다. "여성 이미지" 접근은 사회 통제에 대한 비교적 단순한 조작 체계를 보여주는 반면, "거슬러 읽기"는 모순, 틈새, 말실수 등으로 가득 찬 세계를 보여 준다.²⁸⁾

수잔나 D. 월터스가 할리우드 영화를 거슬러 읽을 수 있는 좋은 예로 드는 것은 마를린 디트리히가 주연한 1932년의 「금발의 비너스 Blonde Venus」이다. 이 영화는 병든 남편을 위해 비너스 모습을 하고 가수로 무대에 섰던 헬렌이 외도와 술로 타락하였다가 유럽 무대에서 전혀 다른 이미지로 성공한 후 귀국하여 다시 가족과 화해하는 스토리다. 월터스는 이 영화가 표면적으로는 책임감 없는 여성이 저지른 잘못으로 벌을 받고 마침내 후회하면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고전적인 할리우드의 서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인공 헬렌이 보여주는 다양한 변신의 폭은 헬렌이 가정을 떠나고 복귀하는 과정을 처벌과 용서로 해석하는데 잘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서사는 헬렌이 충실한 이성애자이며 아내의 에토스가 확실한 인물이어야 설득력이 있는데, 헬렌이 영화 중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역할이나 배우인 마를린 디트리히의 이미지는 그러한 서사와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월터스가 말하는 이러한 텍스트를 필자는 '징후적 텍스트'로 보는데, 징후적 텍스트란 전형적인 전통적 담론이나 상징체계가 여전히 분명히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균열이 뚜렷하게 공존하는 텍스트를 지칭한다. 이러한 텍스트는 독일문학사에서도 종종 만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베데킨트의 「지령」(1895)나 브레히트의 「역적어멈과 그 자식들」(1941)을 꼽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작가의 의도에 따르면 여주인공 룰루는 "자연스러움, 원래적인 것,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의 체현으로 신체에 새겨진 사회의 규범과 도덕의 억압에서 벗어난 유연하고 자유

28) Mayne, Judith: The Female Audience and the feminist Critic, In: Women and Film, ed. by Janet Todd, New York 1988, S.24, 재인용: 수잔나 D.월터스: 앞의 책 100쪽.

로운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 무대에서 룰루는 주로 일종의 팜므 파탈 유형의 인물로 연출되고 수용되었을 뿐 아니라, 룰루의 다양한 역할 변신은 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룰루는 18세기로부터 유래하는 여성의 감수성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세기말적 신체찬양문화와 결합한 인물로 베데킨트는 룰루의 아름답고 해방된 신체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는 여성성의 본질의 구현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드라마의 인물과 플롯상의 이러한 균열들은 룰루에서 그 인물이 표현해야 하는 여성적 가치의 부정을 동시에 읽을 수 있게 만든다. 즉 룰루의 다양한 이미지 변신은 시민사회가 이상화하고 보고 싶어 하는 여성성이 사실은 분열적 구조를 지닌다는 것을 주목하게 만든다.²⁹⁾

브레히트의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징후적 텍스트이다. 이 드라마에서 브레히트는 시민사회의 모성 이상을 비판하고 해체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이러한 해체의 목적은 전쟁에서 맹목적인 모성은 결국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다른 희곡 「어머니」는 어머니가 사적 울타리를 넘어서 계급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브레히트의 억척어멈은 그의 다른 어머니 인물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얻는데, 그것은 전통적 모성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특성을 지닌 장돌뱅이 억척어멈이 작가가 전혀 생각지 못한 매력을 발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억척어멈은 달변이고, 사랑보다 사업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식과 주변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잃지 않는다. 브레히트는 억척어멈의 긍정적 수용에 몹시 당황하여서 영화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업에서는 억척어멈의 달변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은 전통적 모성담론을 해체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계급 이데올로기로 복권하려고 했던 브레히트의 의도를 벗어나는 균열과 모순을 내포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거슬러 읽기’가 급진적 구성주의 젠더이론의 관점을 지난 문학사에 적용하는 전략이라면, 급진적 구성주의 젠더이론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생산의 미학은 조금 다르다. 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급진적 구성주의 젠더이론은 언어비판에 근거한 해체의 글쓰기에 내재된 여성주의적 사유의 잠재력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나치즘의 집단적 범죄에 대한 미학적 자기비판을 위해 언어비판을 화두로 삼았던 오스트리아 전후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바하만이나 옐리네크, 슈트레루비치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주목받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여성적 자아의 주관성과 진실성의 열망이 지배했던 1970년

29) Vgl. dazu: Bovenschen, Silvia: a.a.O. S.43-57.

대의 독일어권 문학에서 잉에보르크 바하만의 『말리나 Malina』(1971)는 여성주의 문학의 새로운 모델을 선취한 중요한 작품이었다³⁰⁾. 1950년대 에른스트 얀들 등과 함께 언어회의를 핵심 미학으로 삼는 전후 신세대 오스트리아 문학의 대표적 시인이었던 바흐만은 『말리나』를 통해 스스로 말했듯이 여성적 자아의 죽음의 단계를 형상화하였다. 1부 「이반과의 행복 Glücklich mit Ivan」에서는 여성적 욕망과 사랑의 실현의 불가능성이, 프로이트의 아버지 즉 '제삼의 인물'을 연상시키는 제목의 2부 「제삼의 남자 Der dritte Mann」에서는 절대 권력의 아버지의 지배가 남긴 억압과 자기부정의 고통이 그려지고, 3부 「최후의 것들 Von letzten Dingen」에서는 형태 없는 화자로만 존재하던 '나'는 결국 벽 속으로 소멸한다. 이 소멸하는 일인칭화자는 작가의 여성적 자아의 부분으로 또 다른 나, 남성적 합리적 언어의 세계, 현실의 세계에 적응한 말리나 만을 남기고 사라진다. 즉, 이 여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부분자아인 일인칭화자는 말하자면 글쓰기가 진행되면서, 즉 언어로 객관화되고 대상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죽음을 맞는 것이다. 『말리나』의 여성주인공이자 화자인 '나'는 최소한의 외형적 특징을 제외하고는 현실적 정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며 "갈색 눈, 금발, 클라겐푸르트 태생" 그리고 비엔나에 현재 살고 있다는 것, 직업란에는 이미 "두 번 줄이 그어져 삭제되고 새로 기록되어"³¹⁾ 있다는 것 외에 어떤 인물인지 알기 어렵다. 『말리나』의 내용 전체가 '나'와 이반과 말리나 사이의 사소한 일상의 행위들 외에는 현실의 시공간적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나'의 내면의 기억, 대화, 가공의 스토리, 인터뷰, 꿈, 편지문 등의 몽타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설 전체가 마치 누군가의 내면의 풍경에 대한 기록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인물로서의 '나'와 화자로서의 '나'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서술기법으로 인해, '나'의 죽음이 인물의 신경증적인 불안과 공포에서 유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내면이 언어화되고 고정되면서 삭제되어버린 내면의 균열과 파편적인 감성들에 대한 은유인지 독자는 불확실한 느낌을 받게 된다.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지독히 다른 인물로 그려지는 '나'와 말리나는 그러나 고립된 둘만의 동거를 고수한다. 내가 벽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을 알지 못하는 마지막 장면의 말리나와 이반의 전화대화는 말하는 일인칭 화자가 말리나의 일부이며, 인물로서의 나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32) 바흐만의 『말리나』는 인물 차원에서 여성인 '나'와 두 명의

30) 바흐만의 『말리나』는 출판 당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다 프랑스 페미니즘과 그에 영향을 받은 여성주의 문학비평의 영향으로 주로 80년대에 왕성하게 수용되었다.

31) 잉게보르크 바흐만: 말리나, 차경아 역, 서울 1982.

남성, 서술차원에서 화자인 '나'와 '나 말리나'가 분리되고 교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반 속에서 살았었고 지금 말리나 안에서 죽어간다." (바흐만 1982, 335) 고 일인칭 화자는 말한다. 『말리나』는 제도로서의 문학이 여성성의 배제와 남성성의 지배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알레고리이자, 19세기 이래 현재까지도 여성작가들이 실제로 겪는 체험을 형상화 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바흐만의 산문은 1980년대 언어와 남성 주체를 하나로 보는 해체주의 페미니즘 철학의 영향 아래 실제로 왕성히 수용되었고, 오늘날 까지 이러한 방식의 수용이 주류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³³⁾.

스스로 급진적 여성주의의 입장을 표방하는 엘프리데 엘리네크의 작품들은 금지와 권력의 남성적 언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체하고 파편화하는 충격적인 경우들이다. 사랑이나 성공이나 라는 두 가지 여성적 삶의 선택 모델이 가부장 사회의 현실에서 그 어느 것도 여성들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린 1975년의 『연인들』 이후, 엘리네크는 이미 『노라가 집을 나간 후 또는 사회의 지주』(1979)에서 가부장적 상투적 표상 뿐 아니라 1970년대 여성운동의 관념에 대해서 거리를 취하는 글쓰기를 보여주었다. 이 드라마에서 엘리네크는 당시 여성운동이 고취한 해방의 전망과 여성적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이 어떻게 총체적인 남성적 자본주의 권력의 체제 안에서 파편화되고 무력화 될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집을 나간 노라는 개인의 신체가 생산수단의 일부로 대상화된 공장의 현장에서 자아의 실현을 위한 노동을 이야기한다. 자아의 실현을 강변하는 직업세계의 노라는 동시에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다시 남성욕망의 대상이 되고 사랑에 빠진다. 노동을 선택한 그녀의 육체는 그러나 춤과 체조에서 기쁨을 느낀다. 노라의 말과 행동, 생각과 감정은 남성적 자본주의 권력의 체제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순에 빠지고 파편화된다. 공장주인 기업가 바이강과 내연의 관계에 들어선 노라는 도미나의 변장을 하고 남편을 고객으로 맞는 역할을 강요당하고 최종적으로 버림을 받는

32) "... 아니 없습니까. 여긴 여자가 없어요. 그런 이름의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이요? 말리나." (바흐만 1982, 337쪽)

33) 국내의 바흐만 수용도 현재까지 이러한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참고: 장순란: 후기구조주의와 잉에보르크 바흐만의 『말리나』 - 해체적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출처: 독일문학 87집, 서울 2003, 192-215 쪽; 유현주: 해체의 글쓰기: 『말리나』, 출처: 유현주: 여성과 글쓰기 - 잉에보르크 바흐만의 후기 산문 연구, 서울 2003, 101-162쪽) 유현주는 독일 바흐만 수용의 최근 변화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바흐만을 '여성공범자' 이론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글을 썼다. (유현자: 희망없는 현실에서 여성이 살아가기 - 잉에보르크 바흐만의 단편집 『동시에』, 출처: 독일문학의 장면들, 이병애 엮음, 서울 2003, 251-274. 쪽)

다.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온 노라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신문을 읽는 남편의 옆에서 차를 준비한다.

1983년의 『피아노치는 여자』는 왜 그리고 어떻게 깊은 무의식의 차원에서부터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주체성 및 욕망과 공존할 수 없는지를 주인공 에리카 코후트와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을 통해 집요하게 드러낸다. 어머니에 의해 남성적 자아를 내면화한 중년의 음악교수 에리카는 장기간 소외된 자신의 신체적 욕망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욕구를 비밀스럽고도 피학적인 방식으로만 방출한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애정의 포로인 에리카는 학생이자 애인인 클레머와의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 이성애 사랑이 전제로 하는 여성적인 정서의 곡선을 끌어낼 수 없는 에리카는 지배적이고 냉담한 가학적 태도이거나, 동시에 무의식적 처벌의 충동에 이끌려 피학적 방식으로만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 냉담하고 경직된 에리카의 남성적 자아는 오로지 그녀의 애정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만 타인과의 교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로 인해 성장기부터 착종된 자아감과 억압된 성욕망을 갖게 된 에리카는 이성애의 이분법에 영원히 동승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 1989년의 『욕망』은 목가적인 소도시에서 부인과 아들을 거느린 한 공장 사장의 가족을 포르노의 무대로 변신시킨 소설이다. 고급 문학에서 쓰기 어려운 저속한 표현들을 여과 없이, 그리고 어떤 에로티시즘의 장식도 없이 건조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 소설은 끝없이 반복되고 교차하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외설적 표현과 상투어들의 물결을 통해 오스트리아 중산층 가족의 이중성과 모순과 소외와 착취를 전달하고 있다.

슈트레루비츠는 그녀 자신이 고백하고 있듯이 엘프리데 옐리네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³⁴⁾ 바흐만 - 옐리네크 - 슈트레루비츠를 잇는 언어실험적 오스트리아 페미니즘 문학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슈트레루비츠는 그녀 자신이 페미니즘의 이론으로 무장해 있으면서도 작품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상투적인 인물을 내세우고 일차원적인 플롯을 구성하는 등 대중소설의 키치와 같은 형식을 차용한다. 그러면서 키치의 경우와는 달리 환상적 감정이나 동일시를 허용하지 않는 단순하고 짤막하고, 꾸밈없는 문장을 구사함으로써 키치의 효과를 다시 한번 뒤집는 전략을 구사한다. 『유혹 3부작. 여성시대 Verführungen. 3. Folge. Frauenjahre』(1996)과 『리자의 사랑 Lisa's Liebe』(1997)에서 슈트레루비츠는 삶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34) Streeruwitz: Können. Mögen. Dürfen. Sollen. Wollen. Müssen. Lassen, 1998.

여자 주인공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여성의 단절된 인식은 언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데, 여성적 자아의 부정을 언어로부터의 배제의 과정으로 형상화하는 바흐만과 달리 슈트레루비츠는 단순하게 끊어지는 병렬적인 글쓰기로 습관적인 언어패턴에 완전히 포획된 여성의 의식을 형상화한다.

V. 결론

사이비 페미니스트들의 개종선언인 '페미니즘의 죽음'이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대중적 호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페미니즘이 그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자기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지난 이십여 년 간 확산되었던 후기구조주의와 기호학적 젠더이론이 열어놓은 새로운 인식론적 잠재력을 놓치지 않으면서 페미니즘의 실천적 문제의식에 다시 접속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하나의 길일 것이다. 19세기 후반 여성운동이 시작된 이래 1970년대 까지 해석학적 주체 모델이 열어놓은 가능성에 천착하면서 여성주의 이론이 발전해온 것처럼, 서구 문명이 자신의 발전논리의 한계를 성찰하기 시작하면서 태동한 후기구조주의 사유는 여성주의 문화연구에도 성차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성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수행성이론과 접목한 버틀러의 급진적 구성주의 젠더이론은 실천적 함의를 포기하지 않는 젠더이론의 전망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인식론적으로 구체적인 사회적 권력관계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성차의 문제를 구조주의적 상호주체성의 틀로 포착하는 사유의 전통이 버틀러 이전에도 존재하였음을 필자는 보부아르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보벤센의 『상상의 여성성』은 로버의 사회적 제도로서의 젠더 개념을 근세초기 문학의 생산, 분배, 소비 시스템에 적용한 선구적 경우로 읽힌다. IV 장에서는 급진적 구성주의 젠더이론이 문학사와 문학작품의 독법에도 어떻게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지 일별해 보았다.

급진적 구성주의 젠더이론이 던진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질문은 비단 성 정체성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규범과 가치부여를 통해 형성되는 모든 종류의 집단적 정체성은 그것이 생성되고 작동하는 의미화과정을 역 추적함으로써, 그 경계가 완화되고 다른 방식으로의 이해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수행이론과 결합한 이러한 문화기호학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이미 다양하게 열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 18세기 서구에서 융성했던 일기체나 편지, 또 기행문 형식의 문학이 작가가 자아의 '진실성'을 연출하는 새로운 수사학이었고, 근대에서 개인의 절대성에 대한 신념은 이러한 기호체계들 없이는 생각하기 힘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이론이 이데올로기 비판을 넘어서 급진적 구성주의와 결합하면서, '이방인'과 '원시', '동양'에 대한 개별적 보고문과 도상들 뒤에는 자연과 문명, 동양과 서양, 신체와 정신, 여성과 남성과 같은 서구적 사유 및 언어의 체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젠더연구는 언어와 기호를 통한 의미화과정이 사회적 권력관계와 내밀하게 연결되는 통로임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다. 젠더이론의 영향 하에 기호학과 역사인류학, 일상사연구는 집단적 정체성과 규범, 가치체계가 현실사회에서 어떤 의미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보다 집요하게 묻게 되었다. 한국 독문학 여성주의 연구가 지난 이십여 년의 서구 젠더이론의 논쟁에서 인식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새로운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공유하기를 희망하면서 이 논문이 그에 대한 작은 기여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잉에보르크 바흐만: 말리나, 차경아 역, 서울 1982.
 Bachmann: Malina, Frankfurt a. M. 1980.
 엘프리데 엘리네크: 피아노치는 여자, 이병애 역, 서울 1996.
 Jelinek, Elfriede: Die Klavierspielerin, Reinbek bei Hamburg 1999.
 Jelinek, Elfriede: Die Liebhaberinnen, Reinbek bei Hamburg 1995.
 Jelinek, Elfriede: Lust, Reinbek bei Hamburg 2001.
 Streeruwitz, Marlene: Verführungen. 3. Folge. Frauenjahre, Frankfurt a. M. 1996.
 Streeruwitz, Marlene: Lisa's Liebe. Romansammelband, Frankfurt a. M. 1997.

2차 문헌

- 로즈마리 퍼트남 통: 페미니즘 사상, 이소영 역, 서울 2000.
- 박광자: 독일여성작가, 대전 2005.
- 수잔나 D. 윌터스: 이미지와 현실사이의 여성들, 김현미 외 역, 서울 1999.
- 시몬 드 보부아르: 제 2의 성, 상하권, 조홍식 역, 서울 1996.
- 유현주: 여성과 글쓰기. 잉에보르흐 바흐만의 후기 산문연구, 서울 2003.
- 이병애: 마를레네 슈트레루비츠의 소설 『유혹』과 『리사의 사랑』에 나타난 통속성 비판. 출처: 이병애 엮음: 독일문학의 장면들, 서울 2003.
- 이병진: 질비아 보벤센의 페미니즘 문예학, 서울 2003. 출처: 이병애 엮음, 같은 곳, 251-274 쪽.
- 임옥희: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주디스 버틀러 읽기, 서울 2006.
-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잉에 슈테판: 젠더연구, 탁선미; 김륜옥; 장춘익; 장미영 역, 서울 2002.
- Beicken, Peter: Ingeborg Bachmann, 2. verbesserte Aufl., München 1992.
- Benhabib, Seyla u. a. (Hg.): Der Streit um Differenz. Feminismus und Postmoderne in der Gegenwart, Frankfurt a. M. 1993.
- Brinker-Gabler, Gisela (Hg.): Deutsche Literatur der Frauen, München 1988.
- Bovenschen, Silvia: Die imaginierte Weiblichkeit. Exemplarische Untersuchungen zu kulturgeschichtlichen und literarischen Präsentationsformen des Weiblichen. Frankfurt a.M. 1979.
-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1990.
- Die Frauenfrage in Deutschland 1865-1915, Stuttgart 1994.
- Foucault, Michel: Über Hermaphroditismus. Der Fall Barbin, Frankfurt a.M. 1998.
- Hark, Sabine u. Dietze, Gabriele (Hg.): Dissidente Partizipation. Eine Diskursgeschichte des Feminismus, Frankfurt a.M. 2005.
- Inge, Stephan: Musen & Medusen. Mythos und Geschlecht in der Literatur des 20. Jahrhunderts, Köln 1997.
- Lorber, Judith: Gender-Paradoxien, 2 Aufl. Frankfurt a..M. 2003.

- Kim-Park, Hee-Kyung: Mutter-Tochter-Beziehungen in den Romanen von Frauen im ausgehenden 18. Jahrhundert, Königstein 2000.
- Rosemarie, Nave-Herz: Die Geschichte der Frauenbewegung in Deutschland, Opladen 1994.
- Simmel, Georg: Schriften zur Philosophie und Soziologie der Geschlechter, Frankfurt a. M. 1985.
- Wirth, Uwe (Hg.): Performanz. Zwischen Sprachphilosophie und Kulturwissenschaften, Frankfurt a.M. 2002.

Zusammenfassung

Konstruktivistische Gendertheorien und dekonstruktivistische Literaturwissenschaft

Tak, Sun-Mi (Hanyang Univ.)

Seit Judith Butlers *Gender Trouble*(1990) haben sich radikal-konstruktivistische Gendertheorien auch in der deutschen feministischen Forschung fest durchgesetzt und gewinnen immer mehr an Resonanz und Beachtung. Nach Ansicht Butlers werden Körper, geschlechtliche Identität und Begehren zu einer Einheit zusammengebunden, innerhalb derer 'sex' als biologisch, d.h. vordiskursiv vorgegeben definiert ist. Butler strebt an, diese Einheit von sex, geschlechtlicher Identität und Begehren als Politikum verdächtig zu machen und die Verbindung der drei Momente aufzulockern. Auf diese Weise wird aber nicht nur die männliche, sondern auch die feministische Identitätspolitik kritisiert, denn jede feste Identifikation ist ein ausgrenzender Akt und impliziert immer Vereinnahmung und Vereinheitlichung. Eine radikal-konstruktivistische Gendertheorie nimmt sowohl von der Abbildtheorie als auch vom

Sozialisationstheorem endgültig Abschied.

Was gibt diese radikal-konstruktivistische Gendertheorie der Literaturwissenschaft zu denken? Aus ihrer Sicht wäre eine feministische Inhaltskritik nicht mehr von so großer Bedeutung. Es kommt nun vielmehr darauf an, die genderpolitischen Signifikationsprozesse aufzudecken und zu erklären, die der Text im realhistorischen Kontext in Gang setzt. Silvia Bovenschen kündigte 1979 mit ihrer Studie zu kulturgeschichtlichen Präsenzformen und literarischen Repräsentationsformen der Frauen in der frühen Neuzeit den Auftakt zu einer neuen gendertheoretischen Literaturwissenschaft an, dem dann viele andere gefolgt sind. Die Tatsache, dass die kulturellen Identitäten und Normvorstellungen erst durch sprachliche und rituelle Wiederholung reproduziert und beibehalten werden können, weist uns jedoch auf ihre prekäre Stellung hin, die sich oft in inneren Rissen und Widersprüchen niederschlägt. Man kann und soll deshalb den Text mit traditionellen Narrativen gegen den Strich lesen und ihre Geltung in Frage stellen.

Die Kritik an den genderpolitischen sprachlichen Formen hat in der Literatur deutschsprachiger Schriftstellerinnen des späten 20. Jahrhunderts eine Tradition, wie z.B. Texte von Ingeborg Bachmann, Elfriede Jelinek und Marlene Streeruwitz ausweisen. Bachmanns *Malina* zeigt uns, wie das erzählende weibliche Ich im Laufe der Erzählung scheitert, leidet, sich selbst negiert und schließlich in die Wand zum Tode geht. Jelineks *Klavierspielerin* legt die verzwickten dunklen Wege der psychischen Zwänge und des negierten Begehrens einer Frau offen, die sich die männliche Subjektstellung zu eigen machen wollte. Streeruwitz parodiert das fragmentierte und verdinglichte Frauenleben, indem sie es exakt im Stil der Trivialliteratur wiederholt. Die Texte der oben genannten Schriftstellerinnen führen uns die Möglichkeit vor Augen, die Sprache selbstkritisch vorzutragen und ihre genderpolitischen Implikationen zu dekonstruieren.

키워드 :

구성주의, 젠더, 페미니즘, 버틀러, 수행성

Schlüsselbegriffe: Konstruktivismus, Gender, Feminismus, Butler, performativ

- 투고 : 2007년 4월 15일
- 심사 : 2007년 5월 15일 / 5월 16일
- 게재확정 : 2007년 6월 9일

· E-mail : smtak@hanyang.ac.kr

· 주소 : 425-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 1동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독일어권언어문화전공